

쉐어하우스·제로창업, 평생교육원서 배우세요

〈주거 공유사업〉

〈소자본 창업〉

은퇴 후 生을 말하다

〈제1부〉 은퇴자 매년 80만명 시대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커리어개발 교육과정 공모사업 예정...2월 개강 앞뒤
전남, 귀농학교 강사 스텝 양성·청소년진로지도사 양성 등 재취업 교육 다채

② 공공기관 평생교육

은퇴 이후 제 2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직업·창업 교육 등 인생 2모작을 위한 강좌를 찾는다면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올 2월 강좌를 개설하고 수강생을 맞이하는 광주와 전남 평생교육진흥원을 살펴본다. 두 기관은 직접 또는 공모기관을 통해 직업·창업교육 등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을 연중 진행한다. 취미와 교양을 위한 강좌 역시 사·도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한 눈에 알 수 있다.

◇광주평생교육진흥원=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은 올해 커리어개발 교육과정, 일자리 연계교육 공모사업을 진행한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확정되기 이전이나 커리어개발 과정은 15개 기관, 일자리연계 교육과정은 11개 기관을 선정해 진행할 방침이다. 강좌개설 시기나 모집규모, 교육 내용은 올 2월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ie.kr>)나 수탁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광주평생교육진흥원 프로그램 가운데 쉐어하우스, 제로창업이 눈에 띈다.

쉐어하우스는 다수가 한 집에서 살면서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인 침실은 각자 따로 사용하지만, 거실·화장실·욕실 등은 공유하는 생활방식이다. 집은 큰데 사용하는 공간이 적은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50~60대 시민 20여명이 참여했다. 주당 1시간씩 3~4개월간 진행된다.

제로창업 교육은 수강생 경험과 지식, 취미에 약간의 교육을 더해 실제 창업으로 연결하는 교육이다. 저자본을 바탕으로 큰 위험을 떠안지 않고 창업을 꿈꾸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강의에서는 공방, 커피점 창업 등을 교육했다. 다양한 업종으로 창업한 게스트를 초청, 창업 과정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직업교육으로는 여성을 위한 패션디자인 교육, 공예수업, 디지털 전문가 교육 등을 진행했다.

◇전남평생교육진흥원= 전남평생교육진흥원도 은퇴 이후 또는 삶의 전환기를 맞아 재취업·창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을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처음 시작한 인생 이모작 지원 사업에는 (사)진도군 귀농귀촌연합회, (사)청우인재육성회(영암군), 보성시니어클럽, 상봉종합사회복지관(여수시) 등 4개 기관·단체가 참여했다.

이들 기관·단체들은 '귀농학교 강사 스텝 양성', '청소년진로지도사 양성' 등 재취업 교육과 함께, 은퇴 이후 제 2의 인생설계를 위한 금융, 건강 등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참가자 34명은 귀농학교 강사나 청소년 지도상담사 등으로 재취업했다.

자생적이고 지속적인 재취업과 창업, 커리어개발을 위해 학습공동체(7팀)를 구성했으며, 이들은 학습 외에도 지역사회 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전남평생교육진흥원은 고령화 인구의 성공적인 노후생활과 재취업, 창업을 위해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공모는 2월 중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전남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jnile.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기고

은퇴 후 인생 이모작, 학습에 달렸다



오주승

전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와 영국 임페리얼칼리지런던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가입국의 기대수명을 분석해 발표했다. 기대수명은 새로 태어나는 사람이 몇 년을 생존할 수 있을지를 나타내는 추산치다.

연구팀은 2030년 출생 기준 한국 여성의 기대 수명을 90.82세로 발표했다. 조사대상 국가 중 최고다. 한국 다음으로는 프랑스(88.55세), 일본(88.41세), 스페인(88.07세)이 뒤를 이었다. 한국 여성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기대 수명 90세 시대를 여는 것이다.

그 뿐 아니다. 2030년 출생 기준 한국 남성의 기대 수명 또한 세계 최고를 기록했다. 한국은 84.07세로, 오스트리아(84.00세), 스위스(83.95세), 캐나다(83.89세) 등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조만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 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정의된다.

더 큰 문제는 고령화의 속도. 현재 한국의 노인 인구 비율은 세계 50위권 수준이다. 그러나 2060년에는 한국이 일본을 앞질러 세계 1위가 될 것으로 UN은 전망하고 있다.

꿈의 '호모 헨드레드'의 시대가 눈앞에 왔다. 'Homo'(인간)와 'Hundred'(100)의 합성어로, 100세까지 장수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오래 산다는 것은 분명 축복이다. 그러나 속단은 이르다. 길어진 인생을 자기 실현의 꿈을 이루는 제2, 제3의 인생으로 연결시키기에 우리의 여건은 밝지만은 않다. 잘못하면 '장수의 저주'에 빠질 수 있다.

'은퇴'는 단순히 일에서 해방되거나 삶을 정리하는 전통적 의미에서 벗어난 지 오래다.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자,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삶의 연속이다.

노후를 축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건강, 생활자금, 사회관계망 등 전제 조건이 많다. 그 중에서도 자기 실현의 가치를 구현해주는 학습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의 사회학자 마크 프리드먼은 다시 한번 직업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앙코르 커리어'를 제안했다. 은퇴 이후의 삶, '인생이모작'도 같은 의미이다.

그런 점에서 평생학습은 인생이모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미래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지식과 기술의 발달 속도는 그야말로 무시무시하다. 끊임없이 배우지 않고는 낙오할 수밖에 없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다. 평생학습을 위한 시설들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다. 교육청이나 시군이 운영하는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은 물론,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공부를 위한 동아리를 만드는 것도 좋다. 대학 평생교육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늦었다고 생각할 것도 없다. 인생은 길고, 배움에 노소가 따로 있겠는가.

우리 전남의 평생학습 수요는 어떨까. 우선 전남 지역의 평생교육 수요는 어느 지역보다 높다. 우선 20세 이상 문해 교육 잠재 수요자의 비율이 전국 평균 13.1% 보다 두 배 이상 높은 26.5%에 이른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도 전국 최고. 고령 인구가 이미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고령 등 6개 군 지역은 30%를 넘었다. 결혼이민 여성 비율도 전국 최고이자, 교육 소외계층인 장애인의 비율도 전국에서 제일 높다.

도민들의 평생교육 욕구도 강하다. 2014년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 도민 1천2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평생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가 46.7%, '필요한 편이다'가 46.3%로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93.0%에 달했다.

그러나 우리의 여건은 아직 열악하다. 평생교육 기관 수, 프로그램 수, 학습자 수, 강사 수 등 모든 면에서 취약하다.

시군의 평생교육 인력 예산의 편차도 크다. 평생교육 관련 조직이나 인력이 없는 시군도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전남도나 시군, 그리고 교육청 등 공공 영역이 더욱 노력해야 할 일이다.

은퇴자 연간 80만 시대의 유일한 대안인 인생이모작, 삼모작을 위해 교육과 복지, 일자리가 선순환하는 구조의 정착이 시급하다.



전남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진행되는 Learn &樂 배움디딤돌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붓글씨를 쓰고 있다.

〈전남도평생교육진흥원 제공〉

평생교육원서 한글 깨치기恨 풀었네

광주·전남 문해교실 30여 곳 운영...초·중등 학력 인정기관도

'뚝뚝/지붕은 잘 고치고/ 지지직 찌지직/ 화물선 바닥도 잘 수리하는데/ 낮놓고 '자도 보이지 않는/ 내 까막눈은 고치지 못하고/ 흰쌀밥에 고기반찬은 잘 먹으면서/ 한 많은 내 마음은 토해내지 못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최한 지난해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모씨(60·광양시)의 시 '인생수리공'의 첫 대목이다. 한글을 깨치지 못한 한을 안고 평생을 살아온 읍골공 이씨의 마음이 절절히 담겨 있다.

전남도 문해교육기관 중 초·중등 학력인정을 해주고 있는 곳은 16개소. 그러나 다른 평생교육기관에서 문해교육을 받고 있는 도민을 포함하면 그 숫자는 6000여명으로 추정된다. 그중 지난 2014년 이후 초등학력 인정을 받은 학습자는 800여명에 이른다. 100세 시대를 맞아 문해교육은 단순히 글을 읽고 쓰는 것을 넘어 섰다. 정보화, 금융 등 은퇴 이후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활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변화된 것이다. 급속한 사회변화에 적응이 힘

든 노인층, 농어촌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육이다.

은퇴 이후 인생 이모작을 생각한다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일상적인 문해교육을 생각해야 한다.

전남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해 말 진흥원 안에 '문해교육센터'를 새로 개설했다. 100세 시대를 맞아 변화하는 문해교육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광주에서는 8개 기관에서 문해교육이 이뤄진다.

광주월산초, 광주송정도서관, 상봉종합사회복지관, 광주효령노인복지타운, 광산구 더불어락노인복지관, 광주희망평생교육원(이상 초등과정), 치평중, 금동평생교육관, 광주맞고노인건강타운, 광주희망평생교육원(중학 과정) 등이다. 문해교육기관과 모집인원 규모는 매년 일정부분 변화가 있으나 기관은 6~8곳, 모집인원 규모는 60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김형호 기자 khh@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